

5) 곱새뒤편

산등(山嶺) 모양이 곱새등과 같고 이 등에 묘를 쓰면 후손이 곱새가 난다고 하여 곱새뒤편이라 하였다 한다.

3. 가구 분포

총 50세대가 거주하며 전주 이씨(全州李氏), 인동 장씨(仁同張氏) 등이 주로 분포한다.

4. 마을의 특징

1) 성황당지(城隍堂址)

성황신을 모시고 매년 정월 대보름날에 엄선된 제관이 성황제를 올리던 곳이었으나, 1959년 사라호 태풍으로 성황당이 유실된 후 성황제는 폐지되었다.

2) 기양저수지(貯水池)

1960년대에 와수골 안쪽에 저수지 공사가 착공되어 후에 준공되었는데 주위에 많은 굴 참나무가 무성하여 경관이 아름답고, 여름에는 시원하며 저수지에 담수어(淡水魚)가 많아 낚시꾼들의 발길이 연중 이어졌으나, 최근 낚시터는 폐지되었다.

제6절 기양3리(基陽三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산 능선이 덕신2리와 경계를 이루고, 서쪽은 대령산맥(大靈山脈)이 마을 뒤로 둘러싸여 있으며, 남쪽은 갈면리와 인접하고 북쪽은 작은 산과 터밭(基田)을 지나 기양2리가 있다. 그리고 금강송면 왕피리와 갈면리에서 흐르는 냇물이 합류되어 마을 앞을 흐르고 있다. 마을회관은 2014년에 신축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2. 마을의 역사

1) 곱시골(古茂谷)

1620년경에 울진 임씨(蔚珍林氏)가 입주(入住)하여, 골이 깊고 예부터 산림(山林)이 무

성하다 하여 곶시골이라 하였다 한다.

2) 두태(斗基洞)

1466년경에 삼척 김씨(三陟金氏)인 두만(斗滿)이라는 농부가 마을을 개척하면서 자기의 이름 두(斗)자를 따서 두기(斗基)라 하였다 하며, 1500년경에는 충주 지씨(忠州池氏)인 서룡(瑞龍)이라는 사람이 마을을 개척하는데 가세하여 지금은 지씨(池氏) 후손이 번창하고, 김씨(金氏) 후손은 그렇지 못하다.

3) 터밭(基田)

1540년경에 순흥 안씨(順興安氏)가 이 마을을 개척하면서 두기(斗基)라는 기(基)자를 따서 터밭(基田)이라 하였다 한다.

3. 가구 분포

총 53세대가 거주하며 충주 지씨(忠州池氏), 울진 임씨(蔚珍林氏), 죽산 안씨(竹山安氏), 경주 이씨(慶州李氏), 남원 양씨(南原梁氏) 등이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기양저수지(基陽貯水池)

1970년도에 착공하여 1977년에 완공된 저수지로 농경지에 관개(灌溉)하고 있으며 또한 경관이 아름답고 담수어(淡水魚)가 많이 서식하고 있어 낚시꾼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졌으나, 2000년대 초 무렵에 낚시터는 폐지되었다.

2) 사명당지(泗溟堂址)

마을 뒷산을 넘으면 뽕족한 봉우리가 있고 그 봉우리에 수백 년이 된 작은 소나무군락이 있는데, 이곳에서 사명대사(泗溟大師)가 수도(修道)하였다는 전설이 있으며 지금은 불공을 드리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3) 성황당지(城隍堂址)

성황신을 모시고 엄선된 제관이 동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성황제를 올리던 곳이었으나 1959년 태풍 사라호로 유실(流失)되었다.

4) 투장골(投葬谷)

마을 앞의 봉우리에 어떤 사람이 밤에 몰래 묘(墓)를 썼는데 그 후로 마을에는 사람, 가축, 재물 피해가 극심하여 동민이 의논 끝에 그 묘를 이장한 후부터 마을이 평온하였다 한다.

제7절 길곡리(吉谷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금장산(金藏山) 지맥의 능선이 기성면 이평리와 경계를 이루고 서쪽은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동편 능선이 영양군과 경계며, 남쪽은 온정면 선구리와 접하고 북쪽은 갈면리와 인접하여 있다. 마을회관은 2003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2. 마을의 역사

1) 광대골(廣大谷)

광대사(廣大寺)라는 절이 있었던 곳이라 하여 광대골(廣大谷)이라 전한다.

2) 길마(吉馬)

조선 초기에 말을 타고 지나가던 선비가 말을 매어두고 용변(用便)을 보고 오니 말이 없어졌기에 찾아보니 말이 이 마을에 누워있으므로 이곳 마을의 산세(山勢)가 말의 안장과 흡사하다 하여 길마(吉馬)라 하였다 한다. 그리하여 안쪽에 있는 마을을 내길마(內吉馬), 바깥쪽에 있는 마을을 외길마(外吉馬)라 하였다고 전한다.

3) 대밭마(竹田洞)

김씨(金氏)라는 사람이 이 마을을 개척한 뒤에 김녕 김씨(金寧金氏)가 정착하여 살았는데 마을 주위에 대밭이 많다 하여 대밭마(竹田洞)라 하였다고 전한다.

4) 삼단(三檀)·사달(沙達)

이 마을은 1400년경에 구씨(具氏), 고씨(高氏), 안씨(安氏)가 마을을 개척하여 살면서 세 사람이 함께 성황당을 모셨으므로 이곳을 삼단(三檀)이라 하였는데 후에 사달(沙達)이라 하였다 한다.